

기행 또는 무애행... "양심이 곧 부처"

(奇行) (無碍行)

삼성 스님의 처절한 수행기록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입적 2주기 맞아 출간

단하소불(丹霞燒佛) 단하파불(呑河破佛) 1200년 전 중국의 단하천엔 선사는 허남성 해협사에서 목불을 태웠다. 추운 겨울, 좌선을 하다가 도끼로 목불을 쪼개 군불을 지핀 것인데 그 절의 원주가 무슨 짓이냐고 꾸짖자 아궁이를 뒤져거렸다. 그건 또 뭐하는 짓이냐는 말에 "사리를 찾는다"고 답한다. 단하천엔 선사가 목불을 태운 것, 단지 추위를 피하려는 목적이었을까? 부처님을 신격화 하고 좌선제일주의에 빠져 형식화된 수행을 반성하지 않는 승단에 대한 뜨거운 경적이었다.

이 사건은 <경덕전등록>과 <오동회원> 등에 실려 선가에 전해지며 활발한 선수행자의 격의행 무애행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단하천엔 선사가 오늘날 다시 살아 온다면? 1200년이 지난 아직도 '소불'의 경적을 청중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인용문으로만 쓸 뿐 살아 있는 수행은 하지 않는다고 통곡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단하천엔 선사의 후신(後身)이 우리 곁에 있었다. 2년 전(2005년 3월)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에서 수행하다가 입적한 탄하삼성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삼성 스님은 2003년 범주사에서 종단의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 팔상전의 토불 6구를 깨부셨다.

결림이 없었다. 이미 '양심이 곧 부처'라는 견지를 확인하고 여러 해 동안 웅맹전전을 하며 수행의 길을 걸었기에 어떤 장애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파격의 행동을 서슴지 않은 덕분에 승단 안팎에서는 '괴각승'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이날의 파발도 그런 맥락이었다. 종단이 지나치게 권력화 정치화 되는 현실, 외형불사와 왜곡된 수행 조장이 극심해 지는 현실, 종단 지도부의 도덕성 부재 등을 개탄하는 행동법문이었다. 특히 삼성 스님은 자신의 승적이 분한신교 미필을 사유로 박탈되어 복직 되지 않은 마당에 말변자는 구제하겠다는 정치논리에서 승단의 미래를 볼 수 없어 파발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다.

과연, 파발은 적절한 선택이었을까? 부질 없는 질문이다. 이미 6구의 불상은 깨졌고 삼성스님은 법금형을 처했고 종단은 별로

변한 것이 없으나...

위법망구(爲法忘軀), 전과 7범의 사연 삼성 스님은 팔상전 석불의 파괴로 벌금형을 받아 생애에서 마지막 전과를 기록한다. 일곱 번째다. 절에서 패지 머리를 놓고 고사지낸 것을 참회 받기 위해 대웅 앞에서 도끼를 들어 보이며 "참회 하지 않으면 내 팔뚝을 잘라 부처님께 바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첫 전과다. 눈앞에서 넘어지는 여자 신도를 부축하는데 그 장면을 사진 찍어 강간 미수로 고발한 신도 덕분에 전과 2범이 됐다. 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병이 깨져 같은 모양의 사리병을 만들어 위조한 사



대자암 무문관에서 수행하다가 2005년 입적한 삼성 스님.

실을 밝히기 위해 권력자들 앞에서 과도를 놓고 "진실을 말하라"고 욕박질러 "사리병은 가짜"란 고백을 받았으나 1년 뒤 협박 쪽행죄로 전과 추가. 종헌종법의 병폐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분신을 기도하다가 전과 4범, 토굴에서 땀나무를 하다가 두 번의 벌금형을 받아 전과 6범이 됐고 팔상전 파발 사건까지 포함 전과 7범이 된 삼성 스님. 일곱 개의 벌은 2500년전 부처님의 '새벽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문관의 기록, 천하가 무문관인 것을 삼성 스님은 무문관에서 수행을 하다가 입적했다. 수행자가 수행하던 좌복 위에서 숨을 거두었으니 행복한 입적이다. 그러나 쓸쓸했다. 무소유를 철저히 지켜 온 생애처럼 삶의 흔적을 거두는 일도 아주 간결했다. 다만 수행 특음이 기록한 글이 남아 있어 이 승과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삼성 스님은 무문관에서의 '정진 일기'를 착실히 기록했다. 날씨와 맥박, 몸무게, 운동

량 등을 기본 정보로 삼았고 그날그날의 마음자리도 진솔하게 기록했다. 자신을 응시하는 예리한 눈빛이 묻어나는 기록이 두 권의 노트에 빼곡하게 남아있다. 파발 사건 이후 무문관을 선택한 것은 죽음을 예감한 것으로 보인다. 천하를 무문관 삼아 살기엔 인연이 각박했기에.

무문관의 정진 일기 못지않게 100일간의 만행을 기록한 만행일기도 읽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범주사에서 입적까지 8일간 도보로 행진한 이야기, 속리산 상현암에서의 뼈를 깎는 정진과 색욕과의 치열한 싸움, 앓은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한 사연 등등 삼성 스님의 생애는 감동 이상의 감동이다.

단식참회와 진리의 중요 삼성 스님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발견하고 얼른 주머니에 넣는다. 넣고 보니 병뚜껑이었다. 반개가 일고 벼락이 떨어지는 느낌! 스님은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는 물욕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기한 없이 단식참회를 했다. 53일만에 심근경색증과 하체 마비를 얻어 불구가 됐으나 다시 기도와 참회 정진으로 병마를 극복했다. 모두 150일의 단식참회와 150만 배의 정진이였다.

"마음이 부처라 함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증오하였다. 양심이 성스러운 불성임을 증오하였다. 욕심을 타파하고 무너짐 없는 계율정신을 바로 부처임을 증오하였다."

2002년 3월 1일, 삼성 스님이 견지를 확인하고 부른 노래다.

삼성 스님의 생애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것은 25년간 스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최만희 시인의 공적이다. 그는 불교청년회 활동을 하며 스님과 인연을 맺어 스님이 직접 기록한 각종 일기들을 전해 받았다. 삼성 스님의 입적 2주기를 맞아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운주사 1만원)를 펴낸 최 시인은 "이 한편의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십전사하여 양심의 빛이 방광하길 바란다"며 "양심이란 두 글자가 쓰인 삼성 스님의 부도를 세우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소'를 찾기까지는 외로워도 '길'을 가라

'심우도(壽牛圖)'는 선(禪)의 열 가지 수행 단계를 그림과 시로 나타낸 것이다. 소가 등장한다고 해서 목우도(牧牛圖)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심우도'는 구도적 수필이나 소설의 주제로 많이 등장한다. 서울 백련사 주지 설산 스님도 이번에 '심우도'란 제목의 구도소설을 썼다. 이 책은 제목에서 이미 복선을 깔아 놓았듯이 주인공 원각 스님이 수행 정진을 통해 인생에 대한 물음과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의 과정을 심우도에 비유했다.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원각 스님의 메시지는 진한 여운을 준다.

"어떤 순간이 닥쳐도 수행정진에 매진하라. 수행이란 외로운 것이지만 외로움을 뛰어넘는 수행이 정말 참수행이 아닌가?" 책장을 덮고 나면 무엇인가 얻어맞은 듯한 감동과 발심이 솟구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심우도 설산 스님 지음 연인 M&B 11만원

인간과 자연의 미래 '느림'으로 심는다

이 책은 알제리 출신 프랑스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와 녹색 운동가 니콜라 율로가 인간과 자연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피에르 라비는 자급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 친환경 유기 농법을 연구하고 이를 유럽과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프랑스 방송인 니콜라 율로 역시 1990년 '니콜라 율로재단'을 설립해 환경교육을 강조하며 활발한 녹색운동을 펼치고 있다.

직업은 다르지만 환경운동을 공통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들은 발목이나 화재를 거대한 면적의 열매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산에 나무가 줄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온실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업도 마찬가지다. 화학비료를 사용한 농업이 지속되면 토양과 지하수층의 오염으로 인간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니콜라 율로는 진보의 개념을 생태학적 차원에서 나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생태학에서는 모두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회적 진보로 인한 결과물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을 때, 이는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에르 라비는 느리게 사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동시에 우리의 삶도 즐기는 방법이라고 역설한다. "빠르게 살기 위해 만든 컴퓨터나 자동차, 비행기 등을 이용해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우리가 떠나보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김주일 기자



미래를 심는 사람 피에르라비 · 니콜라 율로 지음 배영란 옮김 조화로운 삶 1만3000원

중국불교의 뿌리와 독창성찾기

이 책은 저자가 10년의 각고 끝에 펴낸 중국 출판문화사 수상작인 <중국불교철학의요> 5편중 1·2편을 번역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중국불교의 관점에서 중국불교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불교의 뛰어난 인물과 중국불교학자들이 제시한 불교경전의 풍부한 철학적, 사상적인 개념과 관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중국불교철학 평리터엔 지음 김동희 · 이봉순 · 황성규 번역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1만3000원

총론인 제 1편에서는 인도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후 중국의 고유철학인 유교 및 도교와 접목돼 중국불교철학이 형성된 과정과 변천사를 설명하고 있다. 제 2편은 인간 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어 자못 흥미롭다. 인간 삶의 법칙인 인과응보론을 먼저 소개한 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중국불교철학이 인도불교철학의 주제와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전통적 사상인 유교, 도교와의 사상적인 교섭을 통해 독창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북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문없는 문, 빛없는 열매	김성우	콜리어인드
2	스님 마음 불변태요	법륜	정토
3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4	하루 108배 내용을 실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미디어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6	붓다로부터 배우는 재테크의 지혜	민병직	은주사
7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제는 없게	능행	도솔
8	맑고 밝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9	햇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정경각
10	오해투지	한경혜	작가의 집

북서출판 은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전국법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법회가 4월 1일 열립니다.

- ◆서울선원 ☎ 02-522-0122
-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연송 / 4월 15일(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
반야심경 / 4월 22일(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대웅전 원공 기념 파격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45%할인된 5만원에 드립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갈라강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관, 스프레트형강관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도공사)

- 서울·경기도 : 02)456-8831
- 강원도 : 019-396-1110
- 충청도 : 010-8674-2357
- 충청도 : 010-8674-2357
- 경상도 : 010-7638-1117
-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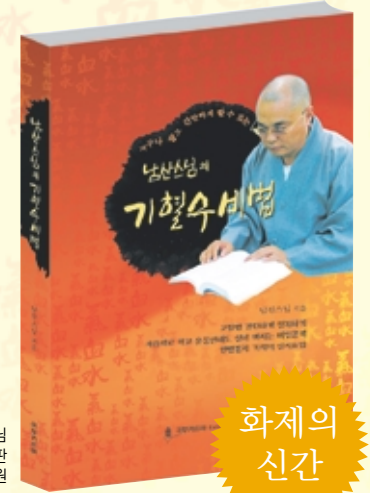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쉽게 살이 빠지는 비법 공개
관절염을 가정에서 쉽게 해결하는 비법 공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남산스님 약력

- 경북 칠곡군 기사면 출생
- 한세대(현 대구대)특수교육센터 졸업
-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과 졸업
- 중국 남경 중의대학 기공학 석사과정 수료
- 중국 요녕성 중의학 대학과 비만학과 교수
- 녹색 대학교 석좌 교수
- 한국대체의학 연구소 소장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문 절리/ 길 10,000원

화제의 신간

국부카르마

문의 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당)